

## 1. 본교 규정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3-1-53-1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3. 3. 개정 2017. 8.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및 예외) ① “자체영향평가”란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예체능계열의 실기고사와 자체영향평가의 실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학부총장(GLOCAL(글로벌)캠퍼스는 GLOCAL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내부위원은 입학처장, 입학팀장(GLOCAL(글로벌)캠퍼스는 입학정책팀장), 입학전형센터장(GLOCAL(글로벌)캠퍼스는 입학사정관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지급) ①제3조 및 제4조의 위원은 전형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전형료 예산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8. 29.)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문항 붙임 번호(문항카드 양식)

▶ 논술(KU논술우수자)

◆ 문항카드 1

◎ 인문사회계 I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논술고사</b>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 I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관계, 입장, 인식, 주체, 존재, 다양성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 도표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관계’를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Martin Buber)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

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 [나]

실용이 허자에게 묻기를,

“사람의 몸이 만물(萬物)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살과 머리털은 산과 숲을, 피는 하수(河水)나 바다를, 양쪽 눈은 해와 달을, 숨 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러 소천지(小天地)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버지의 정(精)과 어미의 혈(血)이 교감하여 태(胎)를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옵니다.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가 진보하고 일곱 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다섯 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몸이 여느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아! 너의 말과 같다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나니, 대저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혈(精血)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거늘, 하물며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다. 생물의 종류는 셋이 있으니, 사람, 금수, 초목이 그것이다.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에 앓은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금수는 옆으로 사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슬기가 없다. 이 세 가지 생물이 한없이 얽히어 혼란을 일으키는 바, 서로 망하게 또는 흥하게 하는데, 귀하고 천함에 등급이 있는가?”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이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용이 고개를 젓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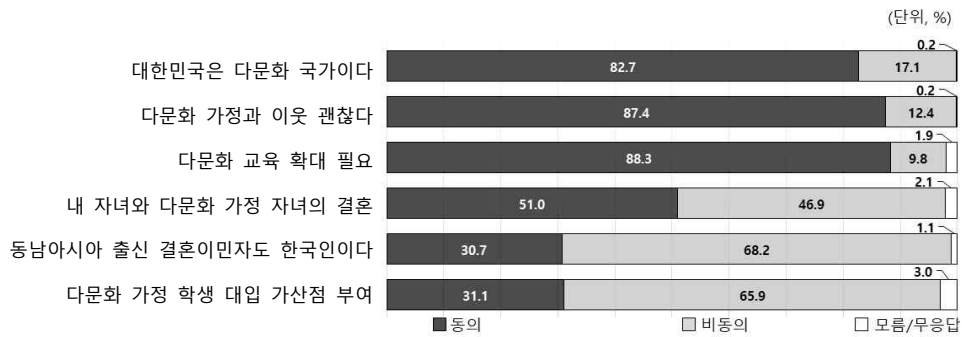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이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마찬가지로이다. 대저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도 없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중략)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군신(君臣) 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이에 허자가 큰 깨달음을 얻더라.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다]

### [도표 1]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도표 2]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라]

포도나무 뿌리를 실은 그의 왜건\*을 타고 영동을 벗어나, 한밤의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그에게 미처 못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고모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그때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왜건 뒷자리에 실린 포도나무 뿌리가 나는 그 어떤 뿌리보다 더 고모할머니의 손 같았다. 일 년여를 한방에서 지내는 동안 밤마다 이불 속을 더듬어 오던, 잠들려 하는 내 손을 슬그머니 움켜쥐던 고모할머니의 손이 시공을 초월해 그의 왜건 뒷자리에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밤마다 내 손을 움켜쥐던 그녀의 손은 쪼그라들어, 겨우 아홉 살이던 내 손보다 작아 보였다.

대형 화물 트럭들이 무섭게 내달리는 경부 고속도로를 서둘러 벗어나고 싶은지, 그는 왜건 속도를 백삼십 킬로미터까지 높였다.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만큼 왜건은 흔들림이 심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차창을 긁으면서, 뿌리에 묻어 있던 흙이 부스스 떨어져 날렸다. 뿌리는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뻗어 있었다. 그와 나 사이로 금처럼 뻗은 뿌리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남귀덕…….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나를 흘끔 바라보았다.

“고모할머니 이름이 남귀덕이었어.”

한 번도 불러 본 적 없는 이름을, 부를 일 없을 것 같던 이름을 나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영동 황간면 포도밭에 다녀온 뒤로 나는 고모할머니의 손이 내 손을 슬그머니 그러잡는 착각에 사로잡히고는 했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수그리고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182명이 사망하고 5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 55명도 평균 나이가 88세가 넘어 머지않아 하나둘 세상을 뜰 것이라고 했다. 고모할머니가 죽은 뒤에도 가족들은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쉬쉬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그녀의 일곱 형제들이 차례로 세상을 뜬 뒤로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애써 기억해 내려 하지 않았다. (중략)

영동에서 구해 온 포도나무 뿌리, 그 뿌리를 나는 며칠 전 다시 보았다. 경북궁 근처 백 년도 더 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서였다. 정희 선배가 찻집 겸 갤러리를 내면서 대학교 때부터 눈여겨본 후배 몇 명에게 전시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부엌을 개조해 만든 전시실, 공중 곡예를 하듯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가 영동에서 구해 온 뿌리라는 것을,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말리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접착제를 바르고, 촛농을 입히는 동안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 남짓한 전시실 입구 옆 명조체로 ‘남귀덕’이라고 적힌 작품명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선뜻 전시실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드리우는 흰색으로 넘쳐나는 전시실 천장과 벽과 바닥에 포도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가 감도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깨달았다. 고모할머니가 이불 속을 더듬어 찾던 것은 단순히 내 손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개쳐진 뿌리와도 같은 자신의 존재…… 잎 한 장,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 맺지 못하고 철사처럼 메말라 가던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이었다고……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그나마 내치지 않고 품어 줄 한 줌의 흙.

포도나무 뿌리를 구해 오고 두 주쯤 지났을까. 불쑥 작업실에 들른 나는 그가 촛농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마침 구경할 수 있었다.

포도나무 뿌리로 촛농이 떨어져 굳는 순간은 극적인 데가 있었다.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옥을 개조해 만든 화랑에 다녀오고 나서야 알았다.

그 순간은, 고모할머니와 그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액체로 흐르던 촛농이 포도나무 뿌리 위로 떨어져 고체로 굳는 순간은, 아무 데도 돌 곳 없던 고모할머니의 손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기적 같은 그 순간을 촛불이 흔들리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마분지 같은 커튼으로 새벽빛이 스며든다. 빛 한 점 떠돌지 않던 작업실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면서 뿌리의 전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뿌리가 한 가닥 지평선처럼 떠오른다. 팔 굽기의, 원뿌리는 아니고 곁뿌리다. 취광\*이 감도는 그 뿌리 너머로 또 다른 뿌리가 떠오른다. 그 너머로 또 다른 뿌리가…….

첩첩 떠오르는 뿌리들 너머에 그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을 것 같다.

중중첩첩\* 착시를 일으키면서 떠오르는, 지평선 같은 뿌리들을 넘고 넘어야만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뿌리들 너머 그에게 들리도록 나는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한다. 내 목소리가 일으킨 파장에 실뿌리들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죽는 순간에 고모할머니가 손에 그러잡고 있던 게 뭐였는지 알아? 가제 손수건도, 보청기도 아니었어. 내 손…… 내 손이었어.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어머니는 질색을 하면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무라지만, 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걸……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우리 집을 떠난 지 이태도 더 지나서였지만, 그녀가 돌아가신 곳이 양로원이지만, 내 손이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 일흔두 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던 날 밤, 그녀의 손이 이불을 들추고 더듬어 오는 걸 다 느끼고 있었어. 잠든 척 시치미를 뚝 떼 채 다 느끼고 있었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더듬더듬…… 더듬어 오는 것을.”

\* 왜건: 승용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의 하나. 세단의 지붕을 뒤쪽까지 늘려 뒷좌석 바로 뒤에 화물칸을 설치한 승용차.

\* 취광: 푸른빛.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맑고 선명한 빛.

\* 중중첩첩: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모양.

###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할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써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자 했다. 서로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학생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제 1]은 [가]와 [나]에서 제시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사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파악한다. 내가 상대방 혹은 사물을 객체로만 대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과 ‘그것’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반면, 하나의 인격으로, 주체와 주체의 대등관계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나]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오만한 위치에서 보기보다는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가]와 [나]를 통해 도표 [다]를 분석할 때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로 파악하면서 다문화 교육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웃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한국인이 정작 자녀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시키고, 결혼이민자를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대입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상에서 한국인을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 옆에 앉기를 싫어한다거나 외국어를 들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문화 외국인을 ‘너’로 대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문제 1]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도표에 적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문제 2]는 “뿌리 이야기”라는 김숨 작가의 소설에서 뿌리를 매개로 나와 고모할머니, 나와 그, 그와 고모할머니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가][나]의 논지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고모할머니가 이부자리 속에서 손을 뻗어 나의 손을 더듬는 행위를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파악한 나,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지만 뿌리 뽑혀진 삶을 살았던 고모할머니와 만남을 뿌리 예술을 표현하려고 한 그, 그리고 그러한 그를 보면서 “지평선 같은 뿌리들을 넘고 넘어야만 그에게 닿을 수 있음”을 깨달은 나는 모두 [가]에서 말한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을 시도하며 [나]에서 언급한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다. 반면 고모할머니의 존재를 쉬쉬하면서 그녀를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한 가족들은 그녀를 ‘그것’으로 대한 사람들이다. [문제 2]에서는 [가]와 [나]를 적용하여 소설 속의 다층적인 관계들을 잘 짚어내어 답안으로 설득력 있게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관련 문제1 [가] [나]
	성취 기준 2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문제1 [가] [나]
	성취 기준 3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성취 기준 4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제2 [라]
	성취 기준 5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2 [라]
	과목명 :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성취 기준 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2
	성취 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가] [나]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2 [가] [나] [라]
	성취 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2 [라]
	성취 기준 4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1 [가] [나]
	과목명 :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문제1 문제2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2 [라]
	성취 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2 [라]
	2. 사회과 교육 과정		
	과목명 :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문제1 [다]
	성취 기준 2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문제1 [다]
	성취 기준 3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문제1 [다]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1 [다]
성취 기준 2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문제1 [다]	

※ 국어 문항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105-107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20	302-304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20	211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20	88-93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없음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105-107		

## 5. 문항 해설

### ● 1번 문항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다]에 제시된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 1]과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를 제시하는 [도표 2]를 통해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해 형성하는 이중적인 인식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는 부버(Martin Buber)의 저서 『나와 너』를 인용하여, 내가 타인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만남인 ‘나’와 ‘너’의 관계와 주체와 객체의 만남인 ‘나’와 ‘그것’의 관계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다른 누군가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돈, 집, 국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지칭되는 대상으로서 ‘나’에게 유일하지 않은 존재이다. 따라서 [가]는 ‘나’와 ‘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나]는 ‘실용’과 ‘허자’의 대화를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초월한 하늘, 사람,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에 제시된 ‘허자’는 처음에는 사람을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하지만 ‘실용’으로부터의 가르침에 의해 사람과 만물이 하늘 아래서 동일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타자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나]는 사람과 만물은 하늘의 관점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에는 두 개의 도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도표 1]은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도표 1]에 의하면, 한국인은 대한민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해 이중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한국인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가] 글의 ‘나’와 ‘그것’의 관계 참조)하고 그들보다 한국인을 귀한 존재로 파악([나] 글의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허자’ 입장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 2]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국인의 일자리 비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한국 경제에 크기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그들의 옆에 앉기를 싫어하고 외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인이 불쾌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인이 그들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한 결과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표 2]가 [도표 1]을 방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 도표의 관계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결과 및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다]에 제시된 도표를 분석할 때, [가]와 [나] 글에 제시된 다양한 관계 유형에 대한 관점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2번 문항

2번 문항은 지문 [가]와 [나]에 제시된 존재 및 관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소설 지문에 해당하는 [라] 지문 속에 담긴 관계의 양상과 의미를 논하도록 한 것이다. [가]는 사람이 맺는 관계를 이해관계에 따른 유한하고 대체적인 관계로서 ‘그것’과의 관계와, 인격 전체에 따른 대등하고 진정한 관계로서 ‘너’와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나]는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 만유의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자/대상과 대등하고 포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말한다. [가]는 인간과 인간, [나]는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지문 모두 대상에 대한 존중과 존재적 합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지문 [라]는 김숨의 소설 「뿌리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질적 연결과 존재적 교감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그러한 관계맺음에 있어 ‘뿌리’라는 사물이 중요한 연결고리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작품 속에서 뿌리는 ‘나’와 ‘고모할머니’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모할머니’와 ‘그’를 ‘나와 너’로 연결하는 구실을 하며, ‘나’와 ‘그’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메우고 두 사람을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 곧 인격 전체를 건 질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이들이 죽은 나무뿌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격하하여 타자화하지 않고, 그것을 귀한 생명적 존재로 존중하면서 교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품 속에서 위안부였던 ‘고모할머니’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던 ‘그’는 뿌리 뽑힌 존재라고 하는 공통성을 지닌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은 뽑힌 나무뿌리를 매개로 해서 깊은 존재적 만남과 합치를 이루게 된다. ‘그’가 뿌리에 쫓놈을 떨어뜨리는 장면은, 그리고 그 뿌리에 붙은 작품명 ‘남귀덕’은 그 합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모할머니’와 ‘그’의 이러한 만남은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묻어 두고 있던 아픈 비밀을 ‘그’에게 고백하게끔 한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나’의 대사는 ‘나’와 ‘그’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 완전한 ‘나와 너’의 관계로 변환되는 과정을 암시적이면서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상, 나무뿌리라는 사물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세 인물의 존재적 합치는 ‘나와 너’의 진정한 관계 맺음인 동시에 [나]에서 말하는 ‘하늘’ 차원의 관계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작은 나’를 넘어서 ‘큰 나’로 나아가는 존재적 확장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이 인물들 주변에 이들을 ‘너’가 아닌 ‘그것’ 차원에서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부였던 ‘고모할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겨 외면하려 한 사람들과 갓난아기인 ‘그’를 내다버린 사람 등이 그들이다. 작품에서 “그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을 것 같다”는 말은 이들이 주변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여겨지면서 겪었을 소외와 상처를 표상한다. 작품 속의 ‘나’는 제 마음 안에 ‘고모할머니’와 ‘그’를 인격 전체로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깨닫고서 마침내 그것을 털어내면서 이들과 시공간을 넘어선 완전한 존재적 합치를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모습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써 마음을 열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지문 [라]에 담겨 있는 이와 같은 관계 양상과 의미를 잘 짚어내고 [가]와 [나]의 요지와 잘 연결시켜서 논리 정연하게 서술한 답안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에 있어 특히 [라]에 형상화된 관계를 얼마나 잘 읽어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나와 고모할머니’ 외에 ‘고모할머니와 그’, 그리고 ‘그와 나’가 맺게 되는 진정한 관계를 어느 하나라도 놓친 경우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그들의 존재적

교감과 합치의 매개체 겸 대상으로서 ‘뿌리’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우수한 답안으로 보기 어렵다. ‘고모 할머니’나 ‘그’를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했던 주변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답안에 적절히 녹여냈는지 여부도 우수 답안을 가려내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

**6. 채점 기준**

● 1번 문항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1]은 [가]와 [나]가 전제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도표 [다] 한국인의 인식에서 볼 수 있는 이중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이다. [문제 1]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영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td> <td>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두 가지 관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람이 타자를 대등하고 유일한 인격체 ‘너’로 대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사물인 ‘그것’처럼 대할 때 진정한 ‘나’의 발견과 형성이 불가능하며, [나]는 사람 중심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존중하고 사물과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td> </tr> <tr> <td>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p> <p>[가] 지문의 핵심 개념어는 ‘나’와 ‘너’, ‘나의 그것’의 관계이며, [나]의 핵심 개념어는 사람의 입장과 만물의 입장을 초월하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늘의 입장이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관점과 자기중심으로 타자를 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타자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p> </td> </tr> <tr> <td>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p> <p>[도표 1]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런 인식의 방증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된 ‘그것’으로 대한다고 외국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두 가지 관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람이 타자를 대등하고 유일한 인격체 ‘너’로 대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사물인 ‘그것’처럼 대할 때 진정한 ‘나’의 발견과 형성이 불가능하며, [나]는 사람 중심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존중하고 사물과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p> <p>[가] 지문의 핵심 개념어는 ‘나’와 ‘너’, ‘나의 그것’의 관계이며, [나]의 핵심 개념어는 사람의 입장과 만물의 입장을 초월하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늘의 입장이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관점과 자기중심으로 타자를 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타자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p> <p>[도표 1]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런 인식의 방증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된 ‘그것’으로 대한다고 외국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4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두 가지 관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람이 타자를 대등하고 유일한 인격체 ‘너’로 대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사물인 ‘그것’처럼 대할 때 진정한 ‘나’의 발견과 형성이 불가능하며, [나]는 사람 중심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존중하고 사물과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p> <p>[가] 지문의 핵심 개념어는 ‘나’와 ‘너’, ‘나의 그것’의 관계이며, [나]의 핵심 개념어는 사람의 입장과 만물의 입장을 초월하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늘의 입장이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관점과 자기중심으로 타자를 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타자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p> <p>[도표 1]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런 인식의 방증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된 ‘그것’으로 대한다고 외국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다]의 [도표 1]에 나타난 이중성을 분석하면서, [가]와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 관점을 보여주는 주제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는가?</p> <p>도표가 2개 제시되었지만 [가], [나]의 관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두 도표를 병렬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가], [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주제어를 찾았다 해도, 양비론처럼 서술하는 것은 출제의도에서 벗어난다. 문제의 요구대로 다문화와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의 핵심 개념과 주장을 적절히 활용해서 분석해야 하며, 도표 2개의 유기적 연결성도 서술해야 한다. 즉 [도표 2]는 [도표 1]에 나타난 한국인의 배타적인 자기중심성을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가]가 제시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가 비판하는 자기중심 관점에서 외국인을 차등적 타자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40점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논점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2번 문항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2]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에 담겨 있는 관계 양상과 의미를 짚어 내어 논리 정연하게 서술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p>	6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관계를 이해관계에 따른 유한하고 대체적인 관계로서 '그것'과의 관계와, 인격 전체에 따른 대등하고 진정한 관계로서 '너'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는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 만유의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자/대상과 대등하고 포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말한다.</p>
	<p>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았는가?</p> <p>[가]는 인간과 인간, [나]는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지문 모두 대상에 대한 존중과 존재적 합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p>
[라]에 나타난 '관계'에 대한 이해	<p>③ [라]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였는가?</p> <p>[라]글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질적 연결과 존재적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뿌리'라는 사물이 중요한 연결고리 구실을 한다. '뿌리'는 '나'와 '고모할머니'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모할머니'와 '그'를 '나'와 '너'로 연결하는 구실을 하며, '나'와 '그'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메워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는 죽은 나무뿌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격하하여 타자화하지 않고 귀한 생명적 존재로 존중하면서 가능한 일이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논하였는가?</p> <p>문제의 핵심은 [라]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나], [라]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이 세 지문을 관통하는 맥을 짚지 못하고 [가], [나], [라]의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나열한다면, 좋은 답변이라 할 수 없다. [가]와 [나]의 요지인 대상에 대한 존중과 존재적 합치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와 '고모할머니' 외에 '고모할머니'와 '그', 그리고 '나'와 '그'가 맺게 되는 진정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모두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뿌리'의 역할도 언급해야 한다. '고모할머니'나 '그'를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했던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서술하는 것도 우수 답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60점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1. 본교 규정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3-1-53-1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3. 3. 개정 2017. 8.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및 예외) ① “자체영향평가”란 대학입학전형에서 본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출제범위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예체능계열의 실기고사와 자체영향평가의 실시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학부총장(GLOCAL(글로벌)캠퍼스는 GLOCAL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상,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내부위원은 입학처장, 입학팀장(GLOCAL(글로벌)캠퍼스는 입학정책팀장), 입학전형센터장(GLOCAL(글로벌)캠퍼스는 입학사정관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지급) ①제3조 및 제4조의 위원에게는 전형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전형료 예산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8. 29.)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문항 붙임 번호(문항카드 양식)

▶ 논술(KU논술우수자)

◆ 문항카드 1

◎ 인문사회계 I

**[건국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b>논술고사</b>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KU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사회계 I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통합사회,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관계, 입장, 인식, 주체, 존재, 다양성
예상 소요 시간	100분	
2.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 도표를 분석하십시오.

(401-600자) [40점]

※ [문제 2]: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관계’를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가]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부버(Martin Buber)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

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가 진정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너'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그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이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너'인가 '그것'인가.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 [나]

실용이 허자에게 묻기를,

“사람의 몸이 만물(萬物)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살과 머리털은 산과 숲을, 피는 하수(河水)나 바다를, 양쪽 눈은 해와 달을, 숨 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러 소천지(小天地)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버지의 정(精)과 어미의 혈(血)이 교감하여 태(胎)를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옵니다.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가 진보하고 일곱 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다섯 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몸이 여느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아! 너의 말과 같다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나니, 대저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혈(精血)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거늘, 하물며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내가 너에게 다시 묻겠다. 생물의 종류는 셋이 있으니, 사람, 금수, 초목이 그것이다.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에 앓은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금수는 옆으로 사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슬기가 없다. 이 세 가지 생물이 한없이 얽히어 혼란을 일으키는 바, 서로 망하게 또는 흥하게 하는데, 귀하고 천함에 등급이 있는가?”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와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이나 의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용이 고개를 젓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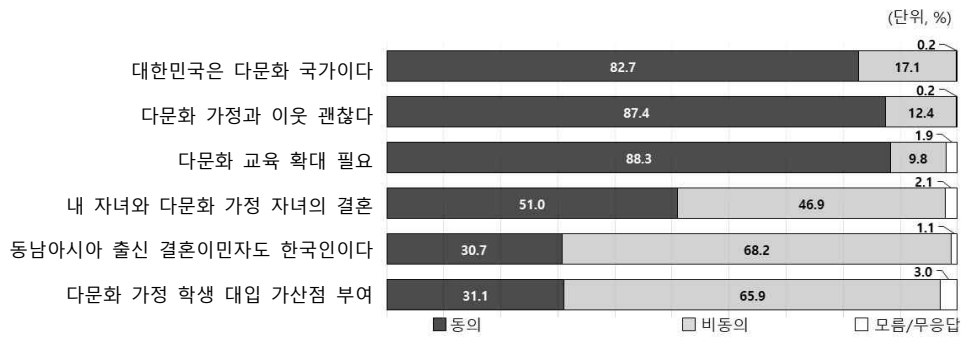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이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마찬가지로이다. 대저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도 없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중략)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군신(君臣) 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이에 허자가 큰 깨달음을 얻더라.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다]

### [도표 1]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도표 2]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라]

포도나무 뿌리를 실은 그의 왜건\*을 타고 영동을 벗어나, 한밤의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나는 그에게 미처 못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고모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걸. 그때는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왜건 뒷자리에 실린 포도나무 뿌리가 나는 그 어떤 뿌리보다 더 고모할머니의 손 같았다. 일 년여를 한방에서 지내는 동안 밤마다 이불 속을 더듬어 오던, 잠들려 하는 내 손을 슬그머니 움켜쥐던 고모할머니의 손이 시공을 초월해 그의 왜건 뒷자리에 실려 있는 것 같았다. 밤마다 내 손을 움켜쥐던 그녀의 손은 쪼그라들어, 겨우 아홉 살이던 내 손보다 작아 보였다.

대형 화물 트럭들이 무섭게 내달리는 경부 고속도로를 서둘러 벗어나고 싶은지, 그는 왜건 속도를 백삼십 킬로미터까지 높였다.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만큼 왜건은 흔들림이 심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차창을 긁으면서, 뿌리에 묻어 있던 흙이 부스스 떨어져 날렸다. 뿌리는 운전석과 조수석까지 뻗어 있었다. 그와 나 사이로 금처럼 뻗은 뿌리가 가늘게 떨고 있었다.

남귀덕…….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나를 흘끔 바라보았다.

“고모할머니 이름이 남귀덕이었어.”

한 번도 불러 본 적 없는 이름을, 부를 일 없을 것 같던 이름을 나는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영동 황간면 포도밭에 다녀온 뒤로 나는 고모할머니의 손이 내 손을 슬그머니 그러잡는 착각에 사로잡히고는 했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수그리고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182명이 사망하고 55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 55명도 평균 나이가 88세가 넘어 머지않아 하나둘 세상을 뜰 것이라고 했다. 고모할머니가 죽은 뒤에도 가족들은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쉬쉬하는 듯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그녀의 일곱 형제들이 차례로 세상을 뜬 뒤로

친척들은 아무도 그녀를 애써 기억해 내려 하지 않았다. (중략)

영동에서 구해 온 포도나무 뿌리, 그 뿌리를 나는 며칠 전 다시 보았다. 경북궁 근처 백 년도 더 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에서였다. 정희 선배가 찾집 겸 갤러리를 내면서 대학교 때부터 눈여겨본 후배 몇 명에게 전시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부엌을 개조해 만든 전시실, 공중 곡예를 하듯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그 뿌리가 영동에서 구해 온 뿌리라는 것을, 나는 단박에 알아차렸다. 말리고, 방부제 처리를 하고, 접착제를 바르고, 솜을 입히는 동안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평 남짓한 전시실 입구 옆 명조체로 ‘남귀덕’이라고 적힌 작품명을 보았던 것이다.

나는 선뜻 전시실 안으로 발을 내딛지 못했다. 포도나무 뿌리가 드리우는 흰색으로 넘쳐나는 전시실 천장과 벽과 바닥에 포도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가 감도는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서 나는 깨달았다. 고모할머니가 이불 속을 더듬어 찾던 것은 단순히 내 손이 아니었다는 걸…… 그녀가 그토록 찾던 것은 흙이었다는 걸. 태어나고 자란 자리에서 파헤쳐져 내팽개쳐진 뿌리와도 같은 자신의 존재…… 잎 한 장, 꽃 한 송이, 열매 한 알 맺지 못하고 철사처럼 메말라 가던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이었다고…… 뿌리 뽑혀 떠돌던 그녀의 존재를 그나마 내치지 않고 품어 줄 한 줌의 흙.

포도나무 뿌리를 구해 오고 두 주쯤 지났을까. 불쑥 작업실에 들른 나는 그가 솜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마침 구경할 수 있었다.

포도나무 뿌리로 솜이 떨어져 굳는 순간은 극적인 데가 있었다.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한옥을 개조해 만든 화랑에 다녀오고 나서야 알았다.

그 순간은, 고모할머니와 그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액체로 흐르던 솜이 포도나무 뿌리 위로 떨어져 고체로 굳는 순간은, 아무 데도 돌 곳 없던 고모할머니의 손과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그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생전 만날 일 없던 두 존재가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기적 같은 그 순간을 솜불이 흔들리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마분지 같은 커튼으로 새벽빛이 스며든다. 빛 한 점 떠돌지 않던 작업실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면서 뿌리의 전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난다. 뿌리가 한 가닥 지평선처럼 떠오른다. 팔 굽기의, 원뿌리는 아니고 곁뿌리다. 취광\*이 감도는 그 뿌리 너머로 또 다른 뿌리가 떠오른다. 그 너머로 또 다른 뿌리가…….

첩첩 떠오르는 뿌리들 너머에 그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을 것 같다.

중중첩첩\* 착시를 일으키면서 떠오르는, 지평선 같은 뿌리들을 넘고 넘어야만 그에게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뿌리들 너머 그에게 들리도록 나는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한다. 내 목소리가 일으킨 파장에 실뿌리들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죽는 순간에 고모할머니가 손에 그러잡고 있던 게 뭐였는지 알아? 가제 손수건도, 보청기도 아니었어. 내 손…… 내 손이었어.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어머니는 질색을 하면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무라지만, 내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걸…… 고모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우리 집을 떠난 지 이태도 더 지나서였지만, 그녀가 돌아가신 곳이 양로원이지만, 내 손이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 일흔두 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던 날 밤, 그녀의 손이 이불을 들추고 더듬어 오는 걸 다 느끼고 있었어. 잠든 척 시치미를 뚝 떼 채 다 느끼고 있었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 더듬더듬…… 더듬어 오는 것을.”

\* 왜건: 승용차를 모양에 따라 분류한 형식의 하나. 세단의 지붕을 뒤쪽까지 늘려 뒷좌석 바로 뒤에 화물칸을 설치한 승용차.

\* 취광: 푸른빛.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맑고 선명한 빛.

\* 중중첩첩: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모양.

### 3. 출제 의도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할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써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자 했다. 서로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학생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제 1]은 [가]와 [나]에서 제시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사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로 파악한다. 내가 상대방 혹은 사물을 객체로만 대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과 ‘그것’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반면, 하나의 인격으로, 주체와 주체의 대등관계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나]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오만한 위치에서 보기보다는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가]와 [나]를 통해 도표 [다]를 분석할 때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해 가지는 인식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로 파악하면서 다문화 교육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웃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한국인이 정작 자녀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시키고, 결혼이민자를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대입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이중성은 일상에서 한국인을 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 옆에 앉기를 싫어한다거나 외국어를 들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문화 외국인을 ‘너’로 대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문제 1]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도표에 적용하는 능력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문제 2]는 “뿌리 이야기”라는 김숨 작가의 소설에서 뿌리를 매개로 나와 고모할머니, 나와 그, 그와 고모할머니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과정을 [가][나]의 논지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고모할머니가 이부자리 속에서 손을 뻗어 나의 손을 더듬는 행위를 자신의 존재를 받아 줄 흙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파악한 나,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지만 뿌리 뽑혀진 삶을 살았던 고모할머니와 만남을 뿌리 예술을 표현하려고 한 그, 그리고 그러한 그를 보면서 “지평선 같은 뿌리들을 넘고 넘어야만 그에게 닿을 수 있음”을 깨달은 나는 모두 [가]에서 말한 주체와 주체로서의 만남을 시도하며 [나]에서 언급한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다. 반면 고모할머니의 존재를 쉬쉬하면서 그녀를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한 가족들은 그녀를 ‘그것’으로 대한 사람들이다. [문제 2]에서는 [가]와 [나]를 적용하여 소설 속의 다층적인 관계들을 잘 짚어내어 답안으로 설득력 있게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관련 문제1 [가] [나]
	성취 기준 2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문제1 [가] [나]
	성취 기준 3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성취 기준 4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제2 [라]
	성취 기준 5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2 [라]
	과목명 :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성취 기준 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2
	성취 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가] [나]
	성취 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2 [가] [나] [라]
	성취 기준 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2 [라]
	성취 기준 4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1 [가] [나]
	과목명 :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 기준 1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문제1 문제2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2 [라]
	성취 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2 [라]
	2. 사회과 교육 과정		
	과목명 :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문제1 [다]
	성취 기준 2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문제1 [다]
	성취 기준 3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문제1 [다]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1 [다]
성취 기준 2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문제1 [다]	

※ 국어 문항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

## 나) 자료 출처

<서식>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105-107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20	302-304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20	211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20	88-93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 없음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105-107		

## 5. 문항 해설

### ● 1번 문항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다]에 제시된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 1]과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를 제시하는 [도표 2]를 통해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해 형성하는 이중적인 인식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는 부버(Martin Buber)의 저서 『나와 너』를 인용하여, 내가 타인과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만남인 ‘나’와 ‘너’의 관계와 주체와 객체의 만남인 ‘나’와 ‘그것’의 관계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다른 누군가와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나와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다. 반면에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돈, 집, 국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지칭되는 대상으로서 ‘나’에게 유일하지 않은 존재이다. 따라서 [가]는 ‘나’와 ‘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나]는 ‘실용’과 ‘허자’의 대화를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초월한 하늘, 사람,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에 제시된 ‘허자’는 처음에는 사람을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하지만 ‘실용’으로부터의 가르침에 의해 사람과 만물이 하늘 아래서 동일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타자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나]는 사람과 만물은 하늘의 관점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에는 두 개의 도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도표 1]은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도표 1]에 의하면, 한국인은 대한민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이웃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민자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해 이중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한국인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가] 글의 ‘나’와 ‘그것’의 관계 참조)하고 그들보다 한국인을 귀한 존재로 파악([나] 글의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허자’ 입장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도표 2]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국인의 일자리 비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한국 경제에 크기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그들의 옆에 앉기를 싫어하고 외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인이 불쾌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설문지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인이 그들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식한 결과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표 2]가 [도표 1]을 방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면,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 도표의 관계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결과 및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다]에 제시된 도표를 분석할 때, [가]와 [나] 글에 제시된 다양한 관계 유형에 대한 관점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2번 문항

2번 문항은 지문 [가]와 [나]에 제시된 존재 및 관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소설 지문에 해당하는 [라] 지문 속에 담긴 관계의 양상과 의미를 논하도록 한 것이다. [가]는 사람이 맺는 관계를 이해관계에 따른 유한하고 대체적인 관계로서 ‘그것’과의 관계와, 인격 전체에 따른 대등하고 진정한 관계로서 ‘너’와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나]는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 만유의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자/대상과 대등하고 포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말한다. [가]는 인간과 인간, [나]는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지문 모두 대상에 대한 존중과 존재적 합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성을 지닌다.

지문 [라]는 김숨의 소설 「뿌리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질적 연결과 존재적 교감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그러한 관계맺음에 있어 ‘뿌리’라는 사물이 중요한 연결고리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작품 속에서 뿌리는 ‘나’와 ‘고모할머니’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모할머니’와 ‘그’를 ‘나와 너’로 연결하는 구실을 하며, ‘나’와 ‘그’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메우고 두 사람을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 곧 인격 전체를 건 질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그것은 이들이 죽은 나무뿌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격하하여 타자화하지 않고, 그것을 귀한 생명적 존재로 존중하면서 교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품 속에서 위안부였던 ‘고모할머니’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던 ‘그’는 뿌리 뽑힌 존재라고 하는 공통성을 지닌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은 뽑힌 나무뿌리를 매개로 해서 깊은 존재적 만남과 합치를 이루게 된다. ‘그’가 뿌리에 쫓놈을 떨어뜨리는 장면은, 그리고 그 뿌리에 붙은 작품명 ‘남귀덕’은 그 합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모할머니’와 ‘그’의 이러한 만남은 ‘나’로 하여금 마음속에 묻어 두고 있던 아픈 비밀을 ‘그’에게 고백하게끔 한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나’의 대사는 ‘나’와 ‘그’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넘어서 완전한 ‘나와 너’의 관계로 변환되는 과정을 암시적이면서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상, 나무뿌리라는 사물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 세 인물의 존재적 합치는 ‘나와 너’의 진정한 관계 맺음인 동시에 [나]에서 말하는 ‘하늘’ 차원의 관계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것은 ‘작은 나’를 넘어서 ‘큰 나’로 나아가는 존재적 확장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이 인물들 주변에 이들이 ‘너’가 아닌 ‘그것’ 차원에서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위안부였던 ‘고모할머니’를 부담스럽게 여겨 외면하려 한 사람들과 갓난아기인 ‘그’를 내다버린 사람 등이 그들이다. 작품에서 “그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누워 있을 것 같다”는 말은 이들이 주변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여겨지면서 겪었을 소외와 상처를 표상한다. 작품 속의 ‘나’는 제 마음 안에 ‘고모할머니’와 ‘그’를 인격 전체로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깨닫고서 마침내 그것을 털어내면서 이들과 시공간을 넘어선 완전한 존재적 합치를 이뤄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모습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써 마음을 열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지문 [라]에 담겨 있는 이와 같은 관계 양상과 의미를 잘 짚어내고 [가]와 [나]의 요지와 잘 연결시켜서 논리 정연하게 서술한 답안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에 있어 특히 [라]에 형상화된 관계를 얼마나 잘 읽어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나와 고모할머니’ 외에 ‘고모할머니와 그’, 그리고 ‘그와 나’가 맺게 되는 진정한 관계를 어느 하나라도 놓친 경우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그들의 존재적

교감과 합치의 매개체 겸 대상으로서 ‘뿌리’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도 우수한 답안으로 보기 어렵다. ‘고모 할머니’나 ‘그’를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했던 주변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답안에 적절히 녹여냈는지 여부도 우수 답안을 가려내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

**6. 채점 기준**

● 1번 문항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1]은 [가]와 [나]가 전제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도표 [다] 한국인의 인식에서 볼 수 있는 이중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이다. [문제 1]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영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middle;">[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td> <td>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두 가지 관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람이 타자를 대등하고 유일한 인격체 ‘너’로 대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사물인 ‘그것’처럼 대할 때 진정한 ‘나’의 발견과 형성이 불가능하며, [나]는 사람 중심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존중하고 사물과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td> </tr> <tr> <td>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p> <p>[가] 지문의 핵심 개념어는 ‘나’와 ‘너’, ‘나의 그것’의 관계이며, [나]의 핵심 개념어는 사람의 입장과 만물의 입장을 초월하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늘의 입장이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관점과 자기중심으로 타자를 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타자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p> </td> </tr> <tr> <td>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p> <p>[도표 1]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런 인식의 방증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된 ‘그것’으로 대한다고 외국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두 가지 관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람이 타자를 대등하고 유일한 인격체 ‘너’로 대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사물인 ‘그것’처럼 대할 때 진정한 ‘나’의 발견과 형성이 불가능하며, [나]는 사람 중심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존중하고 사물과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p> <p>[가] 지문의 핵심 개념어는 ‘나’와 ‘너’, ‘나의 그것’의 관계이며, [나]의 핵심 개념어는 사람의 입장과 만물의 입장을 초월하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늘의 입장이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관점과 자기중심으로 타자를 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타자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p> <p>[도표 1]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런 인식의 방증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된 ‘그것’으로 대한다고 외국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4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두 가지 관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사람이 타자를 대등하고 유일한 인격체 ‘너’로 대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사물인 ‘그것’처럼 대할 때 진정한 ‘나’의 발견과 형성이 불가능하며, [나]는 사람 중심 관점을 비판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존중하고 사물과 타자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p> <p>[가] 지문의 핵심 개념어는 ‘나’와 ‘너’, ‘나의 그것’의 관계이며, [나]의 핵심 개념어는 사람의 입장과 만물의 입장을 초월하여 모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하늘의 입장이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관점과 자기중심으로 타자를 보는 자기중심성을 비판하면서 타자와 상보적 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p>							
	<p>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p> <p>[도표 1]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다문화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런 인식의 방증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 된 ‘그것’으로 대한다고 외국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p>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영역</th> <th>평가 항목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td> <td> <p>④ [다]의 [도표 1]에 나타난 이중성을 분석하면서, [가]와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 관점을 보여주는 주제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는가?</p> <p>도표가 2개 제시되었지만 [가], [나]의 관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두 도표를 병렬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가], [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주제어를 찾았다 해도, 양비론처럼 서술하는 것은 출제의도에서 벗어난다. 문제의 요구대로 다문화와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의 핵심 개념과 주장을 적절히 활용해서 분석해야 하며, 도표 2개의 유기적 연결성도 서술해야 한다. 즉 [도표 2]는 [도표 1]에 나타난 한국인의 배타적인 자기중심성을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가]가 제시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가 비판하는 자기중심 관점에서 외국인을 차등적 타자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td> </tr> <tr> <td>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td> <td>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논점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td> </tr> </tbody> </table>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다]의 [도표 1]에 나타난 이중성을 분석하면서, [가]와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 관점을 보여주는 주제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는가?</p> <p>도표가 2개 제시되었지만 [가], [나]의 관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두 도표를 병렬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가], [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주제어를 찾았다 해도, 양비론처럼 서술하는 것은 출제의도에서 벗어난다. 문제의 요구대로 다문화와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의 핵심 개념과 주장을 적절히 활용해서 분석해야 하며, 도표 2개의 유기적 연결성도 서술해야 한다. 즉 [도표 2]는 [도표 1]에 나타난 한국인의 배타적인 자기중심성을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가]가 제시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가 비판하는 자기중심 관점에서 외국인을 차등적 타자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논점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4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p>④ [다]의 [도표 1]에 나타난 이중성을 분석하면서, [가]와 [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 관점을 보여주는 주제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는가?</p> <p>도표가 2개 제시되었지만 [가], [나]의 관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두 도표를 병렬적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가], [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공통적인 주제어를 찾았다 해도, 양비론처럼 서술하는 것은 출제의도에서 벗어난다. 문제의 요구대로 다문화와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가]와 [나]의 핵심 개념과 주장을 적절히 활용해서 분석해야 하며, 도표 2개의 유기적 연결성도 서술해야 한다. 즉 [도표 2]는 [도표 1]에 나타난 한국인의 배타적인 자기중심성을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그것은 결국 한국인들이 [가]가 제시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가 비판하는 자기중심 관점에서 외국인을 차등적 타자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서술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논점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2번 문항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문제 2]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에 담겨 있는 관계 양상과 의미를 짚어 내어 논리 정연하게 서술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p>	60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p> <p>[가]는 사람이 맺는 관계를 이해관계에 따른 유한하고 대체적인 관계로서 '그것'과의 관계와, 인격 전체에 따른 대등하고 진정한 관계로서 '너'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는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세상 만유의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타자/대상과 대등하고 포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말한다.</p>
	<p>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았는가?</p> <p>[가]는 인간과 인간, [나]는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지문 모두 대상에 대한 존중과 존재적 합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p>
[라]에 나타난 '관계'에 대한 이해	<p>③ [라]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였는가?</p> <p>[라]글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질적 연결과 존재적 교감이 이루어지는데 '뿌리'라는 사물이 중요한 연결고리 구실을 한다. '뿌리'는 '나'와 '고모할머니'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모할머니'와 '그'를 '나'와 '너'로 연결하는 구실을 하며, '나'와 '그'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메워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는 죽은 나무뿌리를 하나의 대상으로 격하하여 타자화하지 않고 귀한 생명적 존재로 존중하면서 가능한 일이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논하였는가?</p> <p>문제의 핵심은 [라]에 나타난 다양한 '관계'를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나], [라]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이 세 지문을 관통하는 맥을 짚지 못하고 [가], [나], [라]의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나열한다면, 좋은 답변이라 할 수 없다. [가]와 [나]의 요지인 대상에 대한 존중과 존재적 합치의 개념을 바탕으로, '나'와 '고모할머니' 외에 '고모할머니'와 '그', 그리고 '나'와 '그'가 맺게 되는 진정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모두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뿌리'의 역할도 언급해야 한다. '고모할머니'나 '그'를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했던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서술하는 것도 우수 답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p>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p>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p>

60점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